

POLITICS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전남발전 이끌 핵심인재 연간 1만명 육성

농어촌 인구·지방소멸 대응
박지원, 관련 법안 4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원도·진도·사진) 의원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개정은 모두 4건으로 지방소멸 대응 관련 지표 국가 지정 통계에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 예타 면제 사업에 생략 인구 확대 사업 신설, 인구감소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 등이다.

박 의원은 “채류 인구, 외국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정부의 전 영역에 반영돼야 농어촌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부터 사업 심사, 국가 세제까지 손을 보게 된 것이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제2 김용현·노상원 방지 교육”
김문수 ‘사관학교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2·3 내란” 주모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관학교 교육 과정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성이 커진 때문 것이다.

김 의원은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수첩에 제시된 구상안대로 대한민국에 끔찍한 정치적 학살과 테러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관학교 교육 목적에 민주 시민의 가치관 형성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군 내부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에서 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며 “육군사관학교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폐지됐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전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 본격 추진
새책·성장·글로벌·평생인재 등 23개 세부사업

전남도가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전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 연간 1만여 명의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는 2019년부터 시행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제2단계다.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는 지역 인재를 발굴해 재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순부터 모집을 시작해 유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역 인재가 꿈을 향해 더욱 비상하도록 탄탄한 인재육성 고속도로를 놓아간다는 방침이다.

생애 주기별로 새책인재, 성장인재, 글로벌인재, 평생인재로 나눠 대학생 무한도전 벤처창업 원정대, 도민 벤처창업 인재스쿨, 문학 아카데미, 섬 드림캠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23개 사업으로 이뤄진다.

사업별로 ‘영재 키움’ 사업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분야 147명, 예술 분야 101명 등 총 248명을 선발해 주말과 방학 기간 전문기관에서 체계적 재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자 중 탁월한 학생을 선정해 으뜸인재, 해외유학생, 취업·정주, 평생인재까지 이어지는 지역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섬 드림캠프’ 사업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학습이 어려운 목포, 여수, 광양, 고흥, 원도, 진도, 신안 등 섬지역을 방문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코딩,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교육을 제공한다.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사업은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영어 필기시험, 영어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0여 명을 선발해 겨울방학 중 4주간의 일정으로 영국 현지 정교회학교 수업 참여, 현지 가정 홈스테이, 견학 등 해외선진지 교육과 문화 경험을 지원한다.

도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전남도 으뜸인재’ 사업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마이스터, 국악·음악, 무용·연기·영상, 클래식, 미술, 체육 등 9개 분야별 우수인재를 선발해 연간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재능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 선발한다.

‘연구인재 역량 강화’ 사업은 대학원생 30여 명을 선발해 연구 역량을 높여도록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미래산업, 현안사업 등을 비롯해 올리는 전남의 미식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 분야’를 새롭게 포함해 선발한다.

‘해의 유학생 선발’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 인재들에게 해외 전문지식과 박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명을 선발해 해외유학비 1억 원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도민 누구나 10인 내외로 팀을 구성해 강좌를 희망하면 읍면동까지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교육으로는 대학, 전문대학,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 등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교육으로는 건강, 취미, 인문학 등 생활밀착형 학습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을 대상으로 총 23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은 3월 중순부터 과학영재 키움, 예능영재 키움, 으뜸인재, 대학생 무한도전 벤처창업 원정대 모집을 시작으로 사업별로 연중 모집한다.

전남도는 지난 5년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한 결과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남수현, 세계 청소년 펜싱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장보령 등을 배출했다. 미국 MIT·하버드대·조지아공과대 등 세계 명문대학 입학, 논문 발표, 서적 출간,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 금상 수상, 특허 출원, 웹툰작가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지역인재가 꿈과 희망을 향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탄탄한 인재육성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해 더 위대한 전남 만들기 한 축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경철의 신변보호를 받게 되면서 장의 활동을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문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후보행진에 동참해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최 대행, 몸조심하라” 방탄복 입고 광화문서 최고위

마은혁 임명 안해 직무유기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의 의무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헌 존중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헌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법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의 문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현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는 노상에서 진행돼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도 민중가요 노래에 “최 권한대행이 국헌 존중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다수 의원에게 “러시아제 관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전남 경찰이 경호 확대 등 신변보호 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 발언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찰과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자리에 함께했다”며 “소통에 차질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는 AI”...광주 대선 공약 윤곽

민주 광주시장, 조기 대선 대비 7개 분야 중앙당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한 지역 발전 공약을 제안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정책개발단은 광주 국회의원과다 수차례 논의를 통해 광주 대선 공약 7대 분야와 5개 자치구 대선 공약을 발굴해 최근 중앙당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첫 번째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도시 조성을 선정했다.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가 광주에 있는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최대 2조 5000억원 규모의 국가 AI클러스터를 유

망 연구소 유지를 내놓았다.

지가지 연구는 초 고배율 현미경처럼 분자 수준의 미세한 물질을 관찰할 수 있게 하고 격리와 융합 과정을 통해 신물질의 발견을 돕기도 한다.

특히 고차기장 연구는 방사광 가속기·중성자 산란 실험 장치와 함께 현대 응집물질 물리 분야 3대 핵심 연구로 꼽힌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해 신규 사업보다는 현안을 발전시키는 형태의 공약을 선정했다”며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최종 대선 공약들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재중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김정숙 여사 방문...민주당 원팀 승리 다짐

이재중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의 ‘고고(고향으로 GO) 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4·2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이재중 선대위 합동 발대식이 19일 동시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깜짝’ 방문해 참석자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김 여사의 방문은 이재중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데 이어 평안북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보필한 ‘인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지금 정치가 국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계절인데 담양에 와보니 이재중 후보가 다기를 봄을 맞는 아름다운 싹을 띄운 것 같다”며 “담양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주철현, 이개호 삼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 지지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중 대표는 축전을 통해 “경험 많고 유능한 이재중 후보는 담양의 미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혼란한



이재중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의 ‘고고 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19일 열렸다.

시기를 극복하고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인물, 이재중 후보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고민정, 김문수, 김원이, 문금주, 박상혁, 박수현, 박지원, 서영교, 신정훈, 윤건영, 이기헌 국회의원

들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이재중 후보는 “엄혹한 시기에 먼 길을 해주시는 김정숙 여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며 “보내 주신 큰 사랑은 선거 승리와 담양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고 답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 석화단지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최병용 도의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 촉구

전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부진과 글로벌 범용제품 공급과잉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의 평균 공정이동률과 영업이익이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하락해 생산라인 중단, 설비감축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 협력업체 도산 및



력 감축 등 고용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례미이후 국내 세수가 21.1% 증가했지만 여수지역은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지역 폐업자는 연간 5000명을 넘어선 등 불황의 여파가 수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정부가 여수국가산단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